



광주 문화예술관광 캐릭터 '오매나'를 만나는 오매나 하우스



한성필 작 'The Ivy Space'

미식·예술 '광주 관광' 출발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케이팝(K-POP)체험과 댄스 페스티벌, 광주 대표 먹거리와 함께하는 미식 기행, 비엔날레와 떠나는 예술여행.

광주시가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선언했다. 지난해 관광객은 860만이었다.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고, 20회를 맞는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30회를 맞는 광주김치축제 등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돼 관광객 유치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광주 관광을 견인하는 광주관광재단(대표 김진강)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K-POP)' 관광 콘텐츠 확산은 올해 재단의 중점 사업이다.

BTS 제이홉, 수지 등 K팝스타들을 배출한 광주는 충장로의 '케이팝 스타의 거리', 발산마을 제이홉 벽화 등 열혈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들을 갖추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00여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던 댄스 경연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오는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에서 '광주스트리트페스타(배

광주관광재단, 올해 사업계획 발표

스트리트페스타· 케이팝 정기공연 개최

시티투어버스, 비엔날레 경유 특별노선

캐릭터 '오매나' 활용 콘텐츠 제작

더현대에 팝업스토어...여가관광학교 운영

틀 라인업)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또 케이팝 정기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적극 알리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우선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 더현대에 광주 예술여행 팝업스토어(3월31일~4월9일)를 개설, 광주비엔날레 홍보존 등을 운영하며 신세계 서울점 등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KTX매거진에 예술도시 광주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4월에는 SRT에 광주를 알리는 영상물을 실을 예정이다.

그밖에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광주비엔날레를 경유하는 특별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문화관광 캐릭터 '오매나' 캐릭터를 알리는 사업도 진행한다. 캐릭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관광 콘텐츠 제작 및 관광 굿즈를 개발하고 '오매나티비' (유튜브)와 오매나 하우스를 운영한다. 오는 4월 11일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오매나' 네이밍데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미식여행 콘텐츠도 개발한다.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음식'과 관련한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터라 차별화된 아이템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광주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해 무등산, 미식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코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단은 광주여행 콘텐츠·상품 공모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는 기존의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함께 처음으로 개인 분야 예술 여행상품 및 콘텐츠 분야 공모도 진행한다. 최근 공모를 통해 3팀을 선정, OTA 연계 홍보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2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여가관광학교'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여행 관련 교육과 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로 로컬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광주 관광지 20곳에 9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광주관광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광주 안내의 참여 역할을 할 택시 운전기사의 교육 등을 위해 교통문화연구소와 MOU도 체결한다.

그밖에 관광유관 분야 7년 이내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며 최근 교육관광을 위해 광주를 찾은 인도네시아처럼 뷰티·교육 등을 연계한 목적 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케이팝 공연 모습.

<광주관광재단 제공>

색소폰·피아노로 듣는 라흐마니노프 선율

브랜드 최·박종해 연주회...4월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클래식 색소폰과 피아노로 듣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

올해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서거 80주년을 맞는 해로 어느 때보다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색소폰 연주자 브랜드 최와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라흐마니노프 곡만으로 레퍼토리를 꾸민 연주회를 갖는다. 4월 5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 레퍼토리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소품 Op.2'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19' 등으로 첼로 파트를 색소폰이 담당,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그는 테너, 알토, 바리톤, 베이스, 4성부를 갖추고 있

는 색소폰의 특성을 활용, 각 곡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성부의 색소폰을 선택해 색소폰 특유의 깊은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브랜드 최는 지난해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작품들로만 구성된 앨범 'Rachmaninoff'를 발매하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리옹 국립음악원을 거쳐 미국 신시내티 음대 대학원에서 최연소 나이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색소포니스트로는 처음으로 미국 링컨센터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미국 신시내티 컴피티션 1위, 한전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올해 12월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도 예정돼 있다.



브랜드 최

박종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와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제자안다 국제콩쿠르 준우승하는 등 다양한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구성연 작 'Candy r.03'

고즈넉한 나주 풍경 '아름다운 순간'

이지연 개인전, 22일까지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나다.

서양화가 이지연 작가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는 서울인사아트프라자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작업실이 있는 나주 풍경을 담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그의 화폭 속에서는 작업실과 가까운 산포면 화지리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자연 풍광에 매료돼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는 모습을 담았다"는 작가의 말처럼 하얀 눈이 쌓인 풍경,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초록의 모습을 만나는 봄, 연꽃이 만개한 여름, 쓸쓸함이 느껴지는 노을 등 다채로운 화지리의 풍경은 서정적이다.

전시에서는 또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군산항과 장흥의 모습,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화산한 색깔의 야생화도 만날 수 있다.



'야생화'

이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협회, 신형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양석승 힐링콘서트'

18일, 남구 문예회관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제 37회 양석승<시인> 힐링콘서트'가 열린다. 18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한국 감성 충전 & 웃음 치료 연구소(소장 양석승)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남구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련됐다.

오프닝 쇼로 대통령 수상자인 최미에 원장의 허튼 춤이 펼쳐지고 사회는 '비 내리는 요양원' 등을 발표한 가수 채호가 맡는다. 이어 가수 김성배가 '이별의 플랫폼'과 '연모'를 부르며 가수 손희중은 '추억의 소야곡'을 선사한다. 김영록 마술사는 차이나 매직인 중국 변검 마술을 펼치며, 가수 전금복은 '참사랑'을 선사하는 등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과 아울러 행운권 추첨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양석승 소장은 "시와 노래, 유머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10-3359-00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이디어 공모

유준상 씨 '...경양정' 최우수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준상 씨의 '아쿠아테라리움을 품은 수상정원, 경양정'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은 조성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준상 씨를 비롯해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수여했다.

우수상은 이주원씨의 '텐트밖은 아문당' 등 2명이, 장려상은 '광주 문화바스'를 제안한 고현석씨 등 5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70만원을 비롯해 우수상은 상금 50만원, 장려상은 상금 2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준상씨는 "이번 '아쿠아테라리움을 품은 수상정원, 경양정'은 아시아문화광장에 천장이 생겨 날씨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착안했다"며 "향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로 구도심, 충장로의 유입인구가 늘어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52건이 접수됐다. 수상작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 향후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